

코로나·부동산 화두에...방송가 대세는 '집방'

'신박한 정리'·'나의 판타집' 등 '집방' 콘텐츠 높은 시청률 호평

가을엔 상류층 '부동산 성공 신화' 드라마 '펜트하우스' 방송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내 집 장만'이 절실해진 요즘 집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리정돈에 관한 예능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욕망에 주목하는 드라마 또한 10월께 방송이 예고돼 있다.

30일 방송가에 따르면 예능 쪽에선 최근 '집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집 관련 콘텐츠가 유행이다.

'신박한 정리'는 배우 신애라와 코미디언 박나래가 스타들의 집에 찾아가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예능이다. 지난 6월 2%대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4일에선 4%대를 넘어섰다.

이 프로그램은 윤은혜, 장현성처럼 예능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스타들이 과감하게 집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관찰 예능에 비금가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스타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덤이다. 출연자들은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에 갖든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짓고, 집 정리는 어느새 '내면의 정리'로 이어진다. 바뀐 집을 보며 '다른 삶'을 다짐하는 스타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김유진 PD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뭔가를 버리고 정리하다 보면 아직 발견 못했던 사연이 나오고 그게 스토리가 된다"며 "코로나19 시국에 랜선 집



'신박한 정리'



'나의 판타집'

들이, 홈스타그램 등이 트렌드가 됐는데 시의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SBS TV에서 최근 방송된 파일럿 예능 '나의 판

타집'이나 지난해부터 방송을 시작해 이제는 완전히 안정 제도에 정착한 MBC TV '구해줘! 홈즈'는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주거환경을 보여준다.

후발주자 '나의 판타집'은 방송 전만 하더라도 '구해줘! 홈즈'와 비슷한 포맷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2회까지 방송을 마친 현재 '구해줘! 홈즈'와는 다른 종류의 '집방'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해줘! 홈즈'가 현실적인 조건 아래 다양한 매물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면, '나의 판타집'은 제목 그대로 판타지에 가까운 집을 보여준다. 양동근의 전원주택이나 허영지의 유리온실, 이승운의 '아이언맨 하우스'는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다.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집은 위화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판타집'은 적어도 집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탈피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시청률도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누구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나의 판타집'은 집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요즘 시대에 로망을 끄집어 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집을 지극히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드라마도 있다. '막장 대모'로 불리는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PD가 '황후의 품격'에 이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SBS TV '펜트하우스'는 올 가을 방송될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주거지가 사실상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 된 오늘날, 상류층 펜트하우스에 진입하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는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학군에 대한 설정도 들어가며 '부동산 성공 신화'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을 건드릴 예정이다.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같은 소위 '막장' 드라마들을 주로 집필했지만 최근 '황후의 품격'에선 장르까지 아우르는 필력을 선보인 김순옥 작가가 극본을 맡아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자 '문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바다, 다음 달 엄마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태교 전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바다가 다음 달 엄마가 된다.

바다는 31일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려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분이 힘든 시기에 축하받으려는 게 괜히 죄송스러워 고민 끝에 오늘에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웨이브나인은 "바다가 귀하게 찾아온 축복같은 2세와의 만남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다는 1997년 '원조 요정' 걸그룹 S.E.S.의 리더이자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솔로 음악 활동과 함께 '카르멘', '노트르담 드 파리', '금발이 너무해'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 활약했다.

2017년 9세 연하 사업가와 결혼한 이후에도 싱글을 발매하고 콘서트 무대에 서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연합뉴스

박보검 해군 입대



배우 박보검(27)이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 입대했다.

사전에 예고한 대로 눈인사나 경례 없이 조용한 입소였다.

박보검은 이날 오후 2시에 검은 캡 모자에 상하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훈련소로 향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주변에서 신병을 안내하는 해군조차도 박보검인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박보검은 함께 입소하는 동기들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잘 맞춰 이동했다.

박보검은 해군에서 지급받은 마스크를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

해군본부에서 문화 홍보병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제대는 2022년 4월 말이다. /연합뉴스

텅텅 빈 극장가...두 번째 빙하기 맞나

코로나19 직격탄 영화관 희망퇴직·영업중단 '모가디슈' '승리호' 등 신작 개봉 줄줄이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가장 추운 봄을 지낸 극장가에 두 번째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름 시장에서 물러나 가을 개봉을 준비하던 대작 등 신작 영화들이 다시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극장 업체 2위인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는 지난달 권고사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9일 롯데컬처웍스에 따르면 회사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전 임직원 9000명 중 근속 기간 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달 초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업계 1위인 CGV가 지난 3월 10일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CGV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이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인원(2천508명)이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다른 35개 직영점과 함께 영업을 중단했던 CGV 인천공항점은 1일부터 다시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간다.

그러나 광복절 연휴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다시 두 번째 빙하기를 맞고 있다.

광복절 연휴 동안 40~60만명대를 유지하던 관객 수는 연휴가 끝나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수도권 확대·강화가 발표된 18일 10만 명대로 폭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데넷'도 고전하고 있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6월 개봉한 '#살아있다'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관객을 극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지만, '감칠비2:정상회담'이 여름 대작 빅3 중 유일하게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또 다른 기대작이었던 '모가디슈'도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하반기 내봉을 신작이 없는 상황이다.

여름 시장에서 물러나 23일 개봉을 예고했던 기대작 '승리호' (메리크리스마스 배급)도 기약 없이 개봉을 연기했다.

'데넷'의 뒤를 이어 선보이는 할리우드 대작인 디즈니의 '물란'과 '뉴 뮤턴트'가 예초 10일과 3일에서 한 주씩 개봉을 미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되고, 3단계 격상까지 언급되는 와중



영화관 거리두기 관람 모습.

이러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중소 규모 영화들도 잇달아 개봉을 연기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담보' 개봉일을 10일로 예정하고 준비해 왔으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 중이고, 김대명이 주연한 '돌멩이' (리틀빅픽처스 배급)도 1일 예정했던 언론 시사회를 취소하고 개봉일을 9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우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대연 건설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정·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광호익스프레스 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삿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	보광세탁소 동구 자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경어즙 달걀즙·참죽·포도즙 각종고춧가루 ☎ 062)224-9559, 010-3617-9779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일번식당 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도로변) 흑염소탕, 떡볶이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떡볶이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 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편,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너 ☎ 062)522-2380, 010-8200-9182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매매 상담 신용본위 ☎ 062)574-8924, 010-9332-818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